

담뱃값, 물가 5% 오를때마다 자동 인상...10년 뒤엔 6048원

2~3년에 200~300원 ↑ 금연 효과 장기화 위해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 만큼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면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가 및 흡연을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즉 1월1일 소비자물가가 100이라면 105가 되는 시점에 담뱃값도 5% 인상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와 연동시켜 자주 조정하면 흡연자가 가격 부담을 덜 느껴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담뱃값과 연동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 결국 2~3년

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2년 이내에 한번씩, 지난해와 같은 역사적인 저물가(1.3%)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엔 2025년에는 담배 한 갑을 사는데 6048원을 내야 한다.

담뱃값을 물가에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은 그동안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없애려는 것이다. 담뱃값 관련 법령이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 등으로 나뉘다 보니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여러 부처가 함께 법 개정을 내야하고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므로 최근 10년간 담뱃값이 인상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담배 사재기, 최대 5천만원 벌금

제조·판매업자... 대형마트 ‘1인당 2보루’ 구매 제한도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조·판매업자나 도소매인이 아닌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담배 사재기 조치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1인당 담배 구매량이나 점포별 구매 제한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마트는 12일부터 1인당 2보루(20갑)로 구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도 13일부터 1인당 담배 구매량을 2보루로 제한한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위성3호, 우주파편과 부딪힐 뻔

13일 오후 4시58분께 최근접 비행...오후 9시18분 교신서 충돌없음 확인

과학기술위성 3호가 구소련 기상위성 ‘메테오르(METEOR) 1-10’ 파편과 13일 오후 4시 58분께 최근접 비행했으나 충돌하지 않았고 미래장조각학부가 밝혔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위성 3호가 우리 상공을 지나는 이날 오후 9시18분 교신을 통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미래부는 앞서 과학기술위성 3호 궤도에 변화가 없고 새로운 우주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보를 오후 7시께 미국 합동우주사령본부로부터 수신했다.

지난해 11월 궤도에 오른 과학기술위성 3호는 우주 관측 적외선 영상을 얻고자 국내 최초로 개발된 소형위성으로, 실제 충돌이 이뤄지면 파괴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미래부에 따르면 미국 합동우주사령본부가 12일 오후 처음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 충돌 위험을 알렸다.

이후 미래부는 항공우주연구소, 인공위성연구센터, 천문연구원과 함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상황을 분석하는 동시에 위성의 자세를 제어해 충돌 가능한 면적을 최소화했다. 과학기술위성 3호에는 자세제어용 추



과학기술위성 3호가 옛 소련 기상위성 ‘메테오르(METEOR) 1-10’ 파편과 충돌 위험을 모면한 13일 대전 인공위성센터 직원들이 과학기술위성 3호와 교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력기만 있고 궤도조정용 추력기가 없어 만약 충돌이 임박한다 해도 파편을 피하기 어렵다.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현재 지구 궤도상에는 약 4천여개의 위성이 돌

고 있다. 여기에 10cm 이상의 우주잔해물이 2만1000여개, 1cm 이상의 우주잔해물도 50만개 이상으로 추정돼 갈수록 이들 사이의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무죄는 궤변”

김동진 부장판사 법원 게시판에 비판 글...대법원 직권 삭제

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

울중양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위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임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헌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연합뉴스

과학·기술 자문위원 서울 편중 심각 교수 154명중 95명...호남, 7명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각 위원회에 위촉된 교수 출신 위원들의 서울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1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소관 35개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교수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현재 전국 대학 연구개발 인력(18만4281명) 중 서울 소재 대학의 인력은 33.2%(6만1159

명)이지만 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는 전체 154명 중 95명(6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대 출신이 27명(17.5%)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 연구인력 비중이 11.3%(2만779명)인 경기도 출신 위원은 6명(3.9%)에 불과했으며, 영남지역의 연구인력은 전체의 22.8%(4만2084명)에 달하지만 위원은 11.0%(17명)이고 호남 역시 연구인력은 10.3%(1만8897명)이지만 위원은 4.

5명(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과 제주 지역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의 위원회 참여는 각 2명과 1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체의 연구인력을 포함한 국내 총 연구개발인력(56만2601명)의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가 31.5%(17만7105명)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4만5174명·25.9%)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경기자jzjpark@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公告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
(김해김씨 삼현파 호남대동보 편찬)

甲子譜(1984년 발간) 이후 30년만에 호남대동보를 편찬 합니다.

- 2014년 3월 30일부터 수단을 접수하고 있어오니 일가분들께서는 서로 널리 알려 편찬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바랍니다.
- 책으로 된 대동보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오니 종친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 바랍니다.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事務所
광주 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김병인 2층)
TEL : 062)265-8033
HP : 010-6380-4757

金海金氏 三賢派 湖南大同譜 編纂委員會

1,479원부터 드리는 특급이벤트!!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 경품 추첨일: 2014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유지고객
-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 1등 50인치 벽걸이TV 3명
- 2등 드럼세탁기 3명
- 3등 제습기 9명
- 4등 쿠키압력밥솥 12명
- 5등 자전거 12명
-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 8등 아자상 1200명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 지급합니다.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권 회원에 한하여 추진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 양평 지점 652-9203 (기동병원 아래) | 월산 지점 364-7557 (대성초사거리)

하반기 부동산 대전망과 실천투자 전략세미나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선택할 수 있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중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 9. 17. (수) 2시 / 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 (사전 예약)

강의/내/용

- 1) 하반기 및 2015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2)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흐름 및 주택시장 투자 전략 공개
- 3) 토지 대전망-토지 가치변화에 따른 개발지역 투자 포인트 해법공개
- 4) 3천~1억 소액투자자로 월세 받을수 있는 투자지역 매물 추천

김영표 부동산 실천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 검색